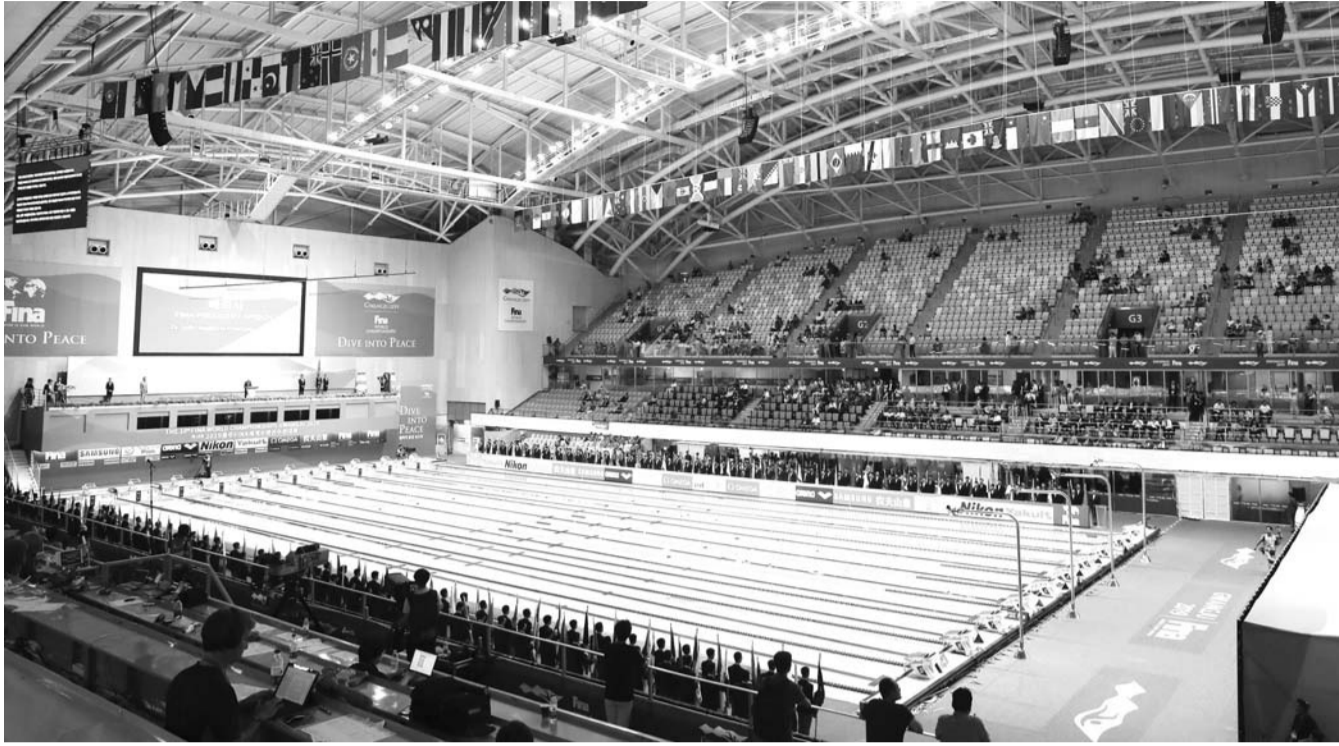


광주수영대회 열기, 마스터즈로 이어진다

세계 수영동호인들의 축제
8월 5~18일, 14일간 열전
84개국 5672명 참가
시설·인력 등 변경·축소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메인 경기장으로 사용된 광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은 오는 8월5일부터 시작되는 광주세계수영마스터즈대회 경영 경기장 등으로 사용된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폐막하고 전 세계 수영 동호인들의 축제인 마스터즈 대회가 다음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광주에서 펼쳐진다. 마스터즈대회는 세계 각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여해 열전을 벌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달리 각국의 수영 동호인들이 참가해 서로의 실력을 겨루고, 친목과 화합의 장을 만드는 대회다. 경기 운영과 시설이 바뀌고 운영 인력이 축소되는 등 세계선수권대회와는 변화가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조직위원회는 마스터즈대회로 조직체계를 신속 전환하는 등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마스터즈 대회는 경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 수영, 오픈 워터 수영 등 5개 종목, 59개 세부 경기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는 달리 하이다이빙이 제외됐다. 경기장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사용됐던 남부대 경기장(경영·다이빙), 남부대수구경기장(수구), 영주체육관(아티스틱 수영), 여수엑스포 해양공원(오픈 워터 수영) 등이다. 하이다이빙 경기는 열리지 않아 조선대 축구장에 마련된 임시 경기장은 철거된다. 마스터즈대회에는 전 세계 84개국에서 선수 4032명, 동반인 572명, 코치 201명, 미디어 392명, 국제수영연맹 관계자 153명, 기술 임원 317명 등 모두 5672명이 참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10개 동호회에서 1034명이 참가한다. 종목별로는 경영 3010명, 다이빙 182명, 아티스틱 수영 142명, 수구 507명, 오픈 워터 수영 552명이 등록했다. 경기 일정은 아티스틱 수영과 수구 5~11일, 경영 12~18일, 다이빙 13~18일, 오픈 워터 수영 9~11일이다. 경기 시간은 야간에도 진행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는 달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열린다. 대회 경기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개최식은 경영 시작 전날인 11일 오후 7시 30분부터 80분간 남부대에서, 폐회식은 18일 오후 7시 30분부터 110분간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다. 8월 5일 남부대 문

화행사장 특별무대에서 축하 콘서트, 8월 5~18일 경기장과 선수촌, 5·18민주광장에서 다양한 문화행사와 공연이 펼쳐진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31일까지 최종 연출안을 수립, 8월 8일까지 무대 설치, 9~11일 리허설을 한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중 운영됐던 마켓스트리트와 유니폼센터, ICT 홍보체험관, 의무실은 그대로 운영된다. 대회 후원의사의 변경으로 A보드, 패널, 배너 등 홍보물, 기록계측장비, 통신망, 전광판, 음향 장비 등은 일부 교체·철거한다. 동호인 행사인 점을 고려해 민간 안전요원의 주도로 질서 유지에만 중점을 두고

최소한의 출입만 통제한다. 대회 운영 인력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3443명)의 절반 가량인 47.4%로 축소된다. 자원봉사자 1303명을 비롯, 지원 인원 291명·단기 인력 37명이 투입된다. 1만2000여명 이었던 시민서포터즈도 5000명으로 줄인다. 경기장 5개소에 마련된 입장관리센터도 운영되지만, 무료입장 및 자유관람이 가능해 입장권은 판매하지 않으며 관람객 현황 집계 및 입장안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대회조직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열린 마스터즈대회 최종 보고회에서 “마스터즈대회는 무엇보다 무결점 안전한 대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권일 기자 cki@

“한국의 불매운동, 이번엔 다르다”

日 언론들, 이례적 장기화·수출규제 반발 움직임 보도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촉발한 한국에서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심층적으로 전하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30일 ‘일본 불매, 한국에서 확대’란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에 반발하는 한국 내 움직임을 자세히 소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특히 이번 불매운동은 오래 가지 못했던 과거의 사례와 다르게 이례적으로 장기화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진단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소비자의 참여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불매운동에 참여한다는 응답률이 7월 10일 48%, 7월 17일 54.6%에서 7월 24일 62.8%로 상승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했다. 또 한국갤럽의 지난 23~25일 조사에선 일본 제품 구매에 “주저한다”는 응답률이 80%에 달했다고 썼다. 요미우리는 지난 11일 상품명을 거명하며 일본 제품에서 한국산으로 바꾸길 권하는 ‘노노 재팬’ 목록이 인터넷에 등장했다며 주요 타깃은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맥주, 캐주얼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일본 여행 상품 등이라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연합뉴스 보도 등을 인용해 7월 1~25일 기준으로 전월 동기 대비 일본 맥주 매출은 48%, 라면은 33%, 화장품은 21% 각각 줄고, 일본 여행 예약자(하루 기준) 수도 7월 8일 이후 하루 평균 55% 급감했다고 전했다. 또 유니클로 매출은 약 30%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이번 불매 운동에 한국 정부(청와대)는 직접적인 지원이나 비판

을 하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해외여행을 즐기는 것은 좋지만 더 많은 국민이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도록 하면 한국 경제에 힘이 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선 해방 50년을 맞은 1995년 일제 강제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 2001년 역사교과서 파동으로 같은 일이 있었지만 모두 단기간에 사그라졌다며, 2001년 당시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불매 운동에 반대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일 언론매체들이 불매 운동 확산을 보도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 주력산업인 반도체를 겨냥한 수출 규제를 가해 가족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던 젊은이들의 불매 운동 동참이 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다. 요미우리는 또 올해가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여서 반일감정이 높아진 것도 불매운동 확산의 한 배경이라면서 ‘독립운동은 못 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는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전했다. 한편, 아사히신문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여파로 지자체 교류 중단, 일본산 불매운동 확산, 방일 여행객 급감 등 경제, 문화 및 스포츠 영역에도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또모에 소재한 한일문화교류회의 임상근 전무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이전에 위안부와 독도를 둘러싼 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해 시민교류가 악영향을 받는 일이 반복됐다”며 현 상황에 대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내년 4인가구 월소득 142만5천원 이하면 생계급여

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42만5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94% 인상됐다. 4인 가구 기준은 올해 461만4000원에서 474만9000원으로 올랐다.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자 선정 기준이 되는데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충하는 것이다. 소득이 0원인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올해 138만4000원에서 내년 142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주거급여 기준은 매년 달라지는데 내년에는 올해(44%)보다 오른 45%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 올해 36만5000원에서 41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연합뉴스

폼페이오 “北과 실무협상 곧 재개 희망”

북핵해결 ‘창의적 해법’ 강조...3차 북미정상회담 계획된 것 없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금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일정을 거론하며 북한과 실무협상을 곧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난제인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한 ‘창의적인 해법’을 강조했다. 다만 3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현재 논의되거나 계획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주관 행사에서 인터넷 형식으로 진행된 대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할 준비가 됐다고 반

박해서 말해왔다고 재차 환기한 뒤 “이제(비핵화 약속을) 실행할 시간이다. 우리가 이를 달성할 수 있기를 나는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RF 외교장관 회담 일정을 거론, “나는 내일 낮에 아시아로 향한다. 나는 며칠간 방콕에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루빅 퍼즐(Rubik’s Cube)’을 풀 수 있도록 실무 협상을 곧(very soon) 다시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루빅 퍼즐’은 작은 여러 개의 정육면체가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큰 정육면체 형

태로, 각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져 흩어진 각 면의 색깔을 같은 색깔로 맞추는 것이다. 북미가 아직 비핵화 개념에서부터 간극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비핵화 합의의 ‘루빅 퍼즐’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이날 대담에서 ‘날짜와 시간 등 큰 3차(북미) 정상회담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는 “논의되고 있는 것이 없다. 계획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현재 가진 것을 유지하면서 더 이상 추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을 경우 제재 해제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너무 가정적

(인 질문)”이라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창의적인 해법’(creative solutions)이 있기를 희망한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대담에서 진행자가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를 묻자 “경제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 측이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의 값어치를 놓고 북미 간에 큰 간극이 있었던 점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모든 걸 말할 순 없지만 우리는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많은 대화를 했다. 우리 팀은 매우 매우 열심히 노력했다”며 “그리고 생산 간에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날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매

-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 소유권/근저당으로 채권보장
- ▶ 현금 5억이상 가능한 분

단독/공동투자 하실분
(주)오천경매,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시골집 완도군 청산면 대지 440㎡ 주택 52㎡ 조용한생활 최적 4800만원
- 장성군 삼계면 농성리 2311㎡ 불루베리 500여주 식재 8500만원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46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투자·매도·교환

- 서구 치평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현공실임 다용도 가능 은행 11억 교환 22억
-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대지 235㎡ 조용한 전원생활 적합 2300만원
- 월산동 다가구 대지 188㎡ 주택 177㎡ 방 10실 전세 800 월 150만대 은행 3천대 2억6천
- 곡성군 입면 매월리 임야·전 24056㎡ 농장·귀농생활 적합 9천만원
- 함평 손불면 산남리 전 8588㎡ 귀농생활적합 2억6500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상가건물

- 나주 혁신도시 중심지 3층 193㎡ 분양 4억9천 은행 2억5천 매도·교환 5억
- 대안동 버스도막 709㎡ 건평 810㎡ 사무 등 적합 공사지가 13억7천 매도 26억
- 두암동 버스도로 5층건물 대지 301㎡ 건평 997㎡ 임대생활적합 8억2천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기가는 49평은 공실17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목포대 인근 무안청계 2중주거지 땅 4413㎡ 축평 2억4천 투자에 좋음 4억4천
- 신안군 앞대면 부두서 배로 10분 독립점 56233㎡ 독립생활적합 3억6천
- 담양군 대덕면 잡종지 8451㎡ 도로연결 전용 물류창고 등 다용도 8억(은행4억5천)
- 신안 앞대면 천사대교에서 15분 53397m 중 계획관리지역 70%선 다용도 개발 5억6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다용도 개발 적합 은행 3억5천 매도 13억
- 광산구 덕림동 계획관리지역중심 29144㎡ 다용도 투자에도 양호 10억8천
-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전원주택단지 적합 27215㎡ 광주서 30분거리 13억2천
- 나주시 금천면 영산강부근 땅 26334㎡ 전원주택형 빌라 등 적합 29억
- 영암군 혁신면 영산강점 산 97404㎡ 감정 8억4천선 하차 5억8천 매도 3천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임야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바로잡니다. 010-6834-7400

장성토지매매!!

- 4층,30평 Apt50채 건축부지 <1가구 전원주택지로 최고>
- 지 번 :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648-1, 2 및 38, 나대지
- 면 적 : 3,646㎡ (1,104평) 읍에서 5분거리
- 환 경
- 좌측 : 바로 옆 피톤치드 편백숲, 곰의산책길·오솔길
- 우측 : 대형블루베리농장·환상의 캠핑장·맛집
- 감정가 : 8.8억 (평당 80만원)
- 매매가 : 7.7억여원 (평당 70만원)
-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입 가능

문의 010-3602-3881(주인)